

“마스크 벗고 봄 맞이해 봄”... 호텔업계, 패키지상품 봇물

제주신라호텔 ‘필 더 스프링’ 운영
매주 월~금요일 제주 자연 안내
워커히호텔앤리조트 ‘벚꽃축제’
내달 첫째·둘째 주말 ‘와인페어’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꽃강스’



벚꽃이 활짝 핀 거리를 사람들이 걷고 있다. 3년만에 지역축제가 전격 재개하면서 호텔가의 봄 패키지가 여느 때 보다 풍성하다. /부산시

호텔업계가 엔데믹(풍토화) 시대를 맞아 봄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전격 해제와 각 지역 봄축제 재개로 여느 때보다 외출 수요가 높은 만큼, 나들이객 사로잡기에 열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제주신라호텔은 ‘필 더 스프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저 전문가들이 각 꽃의 절정기에 따라 제주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

워커히호텔앤리조트는 4년 만에 시그니처 행사인 ‘워커히 벚꽃 축제’를 연다.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말에 세계

각지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 페어를 진행한다. 또 4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야외 공간 포레스트 파크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는 꽃강스 프로모션 2종을 연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일식 파인 다이닝 리쿠는 벚꽃 콘셉

트의 시즌 한정 음료를 판매하며,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천인 씨메르에서 스프링 가든 스파를 5월까지 운영한다.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올해는 봄 여행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색다른 꽃

놀이 콘텐츠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복잡한 봄꽃 명소를 벗어나 호텔로 여유롭게 이색 꽃맛이를 떠나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오롱리조트앤호텔은 봄철 피로 예방과 힐링을 콘셉트로 ‘리바이브 유어 스프링’ 패키지를 출시했다. 메모리오 브코오롱호텔스 패키지는 객실 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향기로 힐링할 수 있도록 패브릭 퍼퓸을 증정한다.

스피링 바데풀 패키지는 마운틴뷰를 자랑하는 객실과 힐링 물놀이, 수압 마사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펫 힐링 패키지는 반려동물을 위해 편백나무 히노끼 탕부터 스파 입욕제 전용 샴푸 및 타올을 준비한 패키지다.

시그니엘부산도 4월 9일까지 투숙 가능한 봄맞이 어게인 블루밍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번 벚꽃 시즌 패키지는 객실 1박과 벚꽃 케이크 1개, 인스타스카메라(대여), 부산 최고층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2매가 제공된다.

롯데호텔 마케팅 관계자는 “호텔 인

근에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장소가 많다”며 “이번 벚꽃 시즌에는 호강스와 함께 편안한 벚꽃 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어몬트앤메서더서울호텔도 5월까지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를 판매한다. 여유로운 크기의 페어몬트 룸에서의 1박과 스펙트럼 뷔페에서의 조식, 그리고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 공원으로 가벼운 봄 소풍을 떠날 수 있는 피크닉 세트가 구성되어 있다.

피크닉 세트에는 페어몬트 피크닉 매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레드와인 1병과 사키테리 세트도 함께 제공된다. 사키테리 세트에는 와인 안주로 잘 찢어놓은 다양한 콜드 컷과 치즈,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바게트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바이오, 세계에 ‘CDMO 비전’ 알린다

20~23일 美 ‘2023 디캣위크’ 참가
존립 대표 참여, 글로벌 인사와 교류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20~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23 디캣 위크(DCAT Week)’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디캣위크는 1890년 뉴욕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디캣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바이오제약 분야 대표 네트워크 행사로, 13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참가자의 90% 이상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간 파트너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알려졌다. 올해는 약 1만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로 인

바이오제약업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0일 오전에는 케빈 사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회원사 발표 포럼 연사로 초청돼 ‘제2바이오캠퍼스 확장 계획’을 주제로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비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세일즈 오피스(영업 사무소)를 현지시간 19일 정식 개소한다.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고객 소통채널 확보 등 영업 역량 측면에서도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이트진로 ‘테라’ 비유전자변형 인증 획득

美 단체서 ‘NON-GMO’ 인증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미국 비영리단체 ‘NON-GMO 프로젝트’ 주관의 NON-GMO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들이 영양 섭취 목적 외에도 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 신념에 따른 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트렌드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청정라거-테라’에 대한 NON-GMO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NON-GMO 프로젝트 측 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테라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부터 2차 성분까지 유전자 변형 없는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테라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원료 유통, 양조 과정, 생산 설비 관리까지 타 재료와 혼입되지 않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예방조치절차서를 구축했다.

하이트진로는 원재료부터 생산 전 공정에 걸쳐 GMO 재료가 혼입되지 않는다는 NON-GMO 프로젝트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기까지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미국에 설립된 NON-GMO 프로젝트는 2200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서 2만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 진행한 바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NON-GMO 프로젝트의 인증은 유전자를 변형한 농작물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종자를 재배해 수확한 작물로 식품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컬리 “펫용품 할인받고 사료 기부해요”

하림펫푸드와 협업 펫케어 행사

컬리가 23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최대 45% 할인하는 펫페어를 열고, 하림펫푸드와 협업해 고객의 구매금액에 따라 유기견에 사료를 기부한다.

이번 펫페어는 사료, 간식, 팻강스 숙박권, 각종 용품 등 700여 가지 반려동물 상품을 한데 모았다. 기획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특가 상품도 판매한다. 하림펫푸드, 골드로나, 바이트미 등 인기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펫페어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마켓컬리와

하림펫푸드가 함께 하는 유기견 사료 기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고객이 5만원 이상 기획전 상품 구매 시 100g 상당의 사료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종 집계 후 유기동물보호센터인 레인보우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하림펫푸드의 더리얼 펫릿 오리·닭 안심 2종이 증정품으로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Kurly

CJ제일제당, 수제형 소시지 출시 ‘육공육 더블에이징 후랑크’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수제형 소시지 ‘육공육 더블에이징(Double-aging) 후랑크 허브&페퍼’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독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마이스터(장인)가 허브, 페퍼와 구운 채소를 조합해 새로 개발한 방식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짜지 않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소비자가 소시지를 구워 먹을 때 감칠맛과 고소한 육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삼겹살, 돼지 뒷다리살 등을 최적으로 배합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육공육 더블에이징 후랑크 허브&페퍼’는 프라이팬만 있으면 간편하게 근사한 식사를 만들 수 있어 캠핑이나 브런치용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 ‘메타버스면세점’ 만든다

올림플래닛과 업무협약 체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메타버스면세점’ 구축에 나선다.

지난 9일 현대백화점그룹은 메타버스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플래닛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엘리팩스’를 활용해 메타버스 현대백화점면세점 구축에 나선 예정이다.

고객들은 인터넷 면세점에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안에 메타버스관(가칭)을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육우석 마케팅 담당(상무)은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육우석 현대백화점면세점 마케팅담당(상무, 오른쪽)과 권재현 올림플래닛 대표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사가 추진중인 스마트 면세 서비스 구축 기조에 발맞춰, 면세점 업계 디지털 서비스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